

여행업 동향

재도약의 발판

2007년 11월 30일

비중 확대

KOSPI 1,906.00 p
KOSDAQ 741.84 p

Analyst

이주병

02-3787-2394, zblee@sh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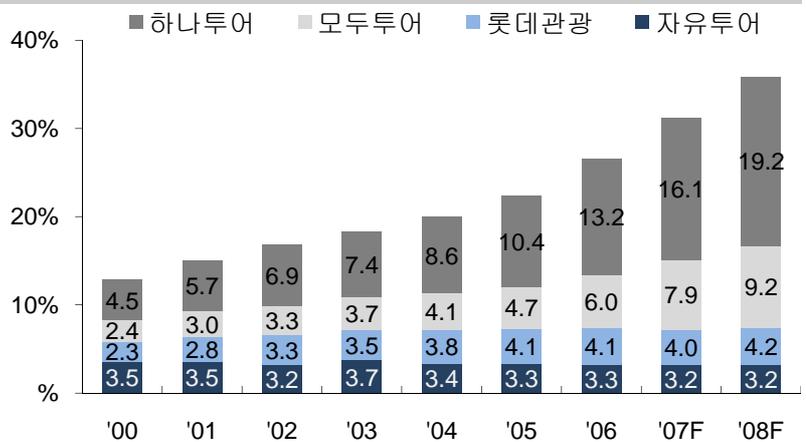
투자의견 : 비중확대

종합의견

'08년 상반기 중 여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제시한다. 당사는 '07년 하반기 여행업종을 전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비중확대를 유지하지만, 4Q 중에는 계절적 요인과 선거실시 등을 고려해 일시적인 부진을 예상했다. 실제로 하반기 여행업 동향은 3Q 중에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고, 이후 주요 기업들의 주가 추이는 시장수익률을 하회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집계되는 4Q 예상 실적은 당초 우려를 희석화 시키고 있어 향후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 해외 여행시장의 고성장이 탄탄히 유지되고 있는 요인은 ① 다양한 형태의 여행상품 개발, ② 원화가치 상승, ③ Open Sky Policy에 따른 항공좌석 공급 증가(신규취항/복항), ④ 여행상품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08년 상반기 중에도 양호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Top-pick으로 모두투어를 제시한다. 동사는 시장 내 입지 강화로 1위와의 격차를 점차 축소시켜 나가면서 있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있어 여행업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 평가된다.

그림1. 주요 여행사 M/S 추이(송객실적 기준) (단위:%)



자료 : KATA, 신용증권

주요 지표 동향

한국 일반여행업협회(KATA) 집계한 내국인 해외여행객 유치실적(76개사 기준)에 따르면, 9월 중 해외 여행자수와 수탁매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27.2%와 37.6% 증가한 34.6만명과 3,142.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상위 30개 업체들의 송객인원 비중은 94%로 대형사 중심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관광수지 동향은 관광지출이 12.0억 \$(1인당 관광지출 1,181\$, 8월 15.2억 \$), 관광수입이 3.9억 \$(1인당 관광수입 693\$, 8월 5.2억 \$)를 기록해 적자규모가 확대(yoy -5.8%)되었다. 한편, 9월까지 누계실적으로는 내국인 해외여행객이 전년대비 27.2% 증가한 34.6만 명으로, 이 중 상위 30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94.1%인 32.6만 명을 차지했다. 또한 전체 수탁매출액은 37.6% 증가한 3.1조원으로 상위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92.9%인 2.9조원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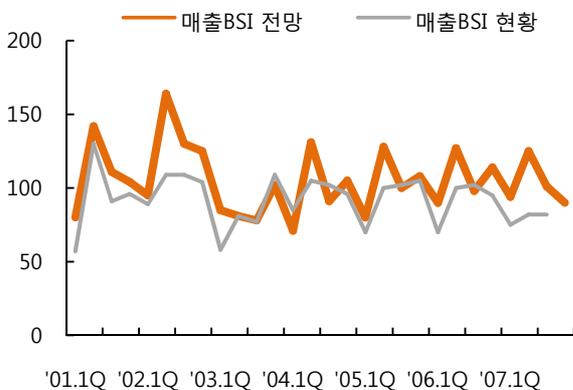
송객인원 성장세 지속

주요 여행 4사들의 내국인 송객실적을 살펴보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95,762명(yoy+ 43.9%)과 44,763명(+ 59.8%), 그리고 롯데관광개발과 자유투어가 24,155명(+ 32.5)과 20,904명(+ 53.18%)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30사와 전체 송객인원수는 + 26.7%와 + 27.2%로 집계되었다. 한편, 9월까지 누계실적으로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 48.0%, + 62.4%, 롯데관광개발과 자유투어는 + 13.9%와 + 20.9%를 기록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객단가 하락세 지속

9월 중 여행상품 객단가 추이는 전체적으로 8.1% 개선되었지만, 누적실적으로는 소폭 하락세(-1.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9월 중 추석 연휴가 포함되면서 중·장거리 여행 비중이 확대되었지만, 연중으로는 중국이나 일본 등 단거리 상품의 편중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신생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업체 간 경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9월까지 상위 4사들의 APS는 하나투어 84.5만원(-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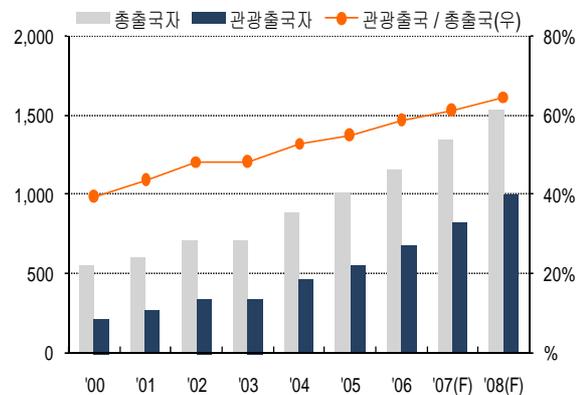
그림2. 관광산업 매출액 BSI 동향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림3. 내국인 출국자 동향

(단위:만명,%)



자료 : KATA

모두투어 84.6만원(+0.1%), 롯데관광개발 98.7만원(+0.8%), 그리고 자유투어 72.0만원(+7.4%) 수준이고, 상위 30사와 전체 여행사는 각각 81.0만원(-0.6%)과 81.5만원(-1.2%)을 유지했다.

VWP 시행에 따른 수혜 전망

VWP(Visa, Waiver Program)

정부는 그동안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바이오정보(국제민간항공의 전자여권 규정 : 안면은 필수, 지문 및 홍채 등은 선택) 제공과 제도적인 문제들로 변수가 작용해 도입시기는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VWP에 가입된 국가들은 약 27개국으로 1989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3년 이내에 각국의 방미객 수는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0% 이상 증가한 국가들도 전체 약 70%(13개 국가)를 차지했는데, 일본의 경우도 83% 증가를 기록했다. 따라서 미국 방문 비중이 높은 우리 나라도 이와 유사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을 비롯한 미주 전지역으로의 여행이 수월해 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여행업계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행업계의 수익성 약화 초래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 관련 사항

11월 중 여행업계에서는 국적 항공사가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핫이슈로 부각되었다. 현재 항공사들은 항공권 판매 대행으로 여행사에 9%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e-티켓의 확산과 외항사들과의 차별성 등으로 수수료율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적 항공사들의 직접판매 비중이 아직까지 5% 미만 수준이고, BSP에 가입된 중소 여행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단기에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06년 기준으로 BSP를 통해 발권한 항공권이 약 5조원 규모로 수수료율을 1% 낮출 때마다 약 5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항공사들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Compliance Not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추천일 현재 해당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최종경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투자 의견 분류

- 비중확대 (Overweight) : 자산 포트폴리오상 비중확대를 권유할 산업.
- 중립 (Neutral) : 자산 포트폴리오상 중립을 권유할 산업.
- 비중축소 (Underweight) : 자산 포트폴리오상 비중축소를 권유할 산업.